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음 12월 29일) 제19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슬럼화되던 전주 구도심 지역경제 건인 핵심공간 자리매김

시, 또다른 기적 만든다

관광객 발길 남부시장 등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아시아 문화심장터 지속 추진

전주를 찾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의 발길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인근 풍남동과 서화동, 고사동, 다가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슬럼화현상이 심화됐던 이 구도심 일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풍남문·남부시장 △오목고·서화동·국립무형유산 △경화거리·객리단길 △동문거리·가막거리 등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면서 구도심 전역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과거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옥마을 인근 일부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주전과 팔달로와 충경로, 기린대로 등 하천과 대로를 넘어서까지 한옥마을과 붙어 있는 구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전주시 전역을 찾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과 서쪽으로 맞닿아 있는 풍남문과 남부시장은 특색 있는 청년들 조성과 야시장 운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 관광효과가 가장 먼저 확산된 곳으로 손꼽힌다. 특히 남부시장은 어느덧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면서 관광효과와 전동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또한 전주전 너머 한옥마을 남쪽에 위치한 서화동도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서며 이른바 예술인마을로 탈바꿈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후의 대명사로 통하며 정채했던 서화동에는 최근 아기자기한 공예품 가게와 지역예술가들의 화실,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맛집 등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또 전주한옥마을과 북쪽으로 맞닿아 있지만 상대적으로 풍남문·남부시장보다 관광 파급효과가 덜했던 동문 예술거리도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되찾았다. 동문 예술거리로 옮겨진 관광객의 발길은 충경로 너머 가막거리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만의 읍주문화인 가막(가계매주)을 맛보기 위한 발길로 몇몇 유명상점에는 매일같이 손님들로 북적인다.

동서남북으로 뻗어간 한옥마을 관광지역도 각각 왕복 4, 5차선인 팔달로와 충경로를 모두 건너야 하는 객사2길·객사3길까지 확장됐다. 노후 건축물들로 가득한 인근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에는 구도심 옛 건축물의 멋을 살린 맛집과 특색있는 카페들이 증가하면서 객사길과 경리단길에서 글자를 딴 '객리단길'이라고 불리며 시민들과 관광

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한옥마을 관광객의 발길이 객리단길까지 이어지면서 주요 통로인 전라감영길과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도 점차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옥마을 1000만 관광효과가 구도심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호텔 등의 숙박업소를 짓겠다는 건축 인·허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FIFA U-20월드컵 개최에 맞춰 고사동에 라마다호텔이 건축된 이후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건축이 허가된 규모 10층 이상인 호텔은 경원동 2곳(206객실, 105객실)과 서소송동 1곳(249객실) 등 총 3곳(560객실)이다.

시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해 로마와 파리 같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주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구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문화와 예술, 영화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1000만 관광객이 찾고 론리플레이티 아시아 문화관광 3대 도시로 선정하는 등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왔다"며 "전주만의 문화 경쟁력과 전주형 도시재생을 통해 가장 전주다운 구도심 100만평을 살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서 시민들을 위한 일지리와 산업으로 연결되는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 13일 전북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 전북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국책사업 발굴 보고 및 토의를 가졌다.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

노조측과 협의 없이 돌연 발표... 2000여명 구조조정 절차 돌입

한국GM은 오는 5월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6면> 한국GM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군산공장 직원 약 2000명(계약직 포함)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측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해 오다가 전날 구두로 구조조정 계획을 전격 통보했으며, 노조측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이날 돌연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장은 쉐보레 크루즈, 올란도 등을 생산하며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로 떨어졌다.

한국GM은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카젤 한국GM 사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측은 "노동조합, 한국정부와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시했다"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연혁

- ▲1994년 6월 - 공장 기공식
- ▲1996년 6월 - 공장건설 완공
- ▲1996년 12월 - 누비라 양산개시
- ▲1997년 4월 - 공장 준공식
- ▲1999년 12월 - 레조 양산개시
- ▲2002년 10월 - GM DAEWOO 출범
- ▲2002년 11월 - LACETTI 양산개시
- ▲2003년 11월 - LACETTI H/B 양산개시
- ▲2004년 5월 - 디젤엔진공장 기공식
- ▲2004년 6월 - LACETTI S/WAGON 양산개시
- ▲2006년 5월 - 디젤엔진 양산개시
- ▲2007년 2월 - 라세티 디젤 양산
- ▲2008년 11월 - 라세티 프리미엄 양산
- ▲2009년 2월 - 라세티 프리미엄 디젤 양산
- ▲2010년 10월 - 쉐보레 올란도 양산(수출)
- ▲2011년 2월 - 쉐보레 올란도 양산(내수)
- ▲2011년 3월 - 시장 및 브랜드 변경(한국지엠 주), 쉐보레>글로벌 해치백
- ▲2011년 4월 - 글로벌 해치백 쉐보레 크루즈5 양산
- ▲2011년 7월 - 2012년형 크루즈 출시
- ▲2012년 6월 - 2013년형 더 퍼팩트 크루즈 출시
- ▲2012년 7월 - 2013년형 올란도 출시
- ▲2012년 11월 - 올란도 택시
- ▲2013년 10월 - 크루즈터보 출시
- ▲2014년 8월 - 쉐보레크루즈, 글로벌 300만대 판매 돌파
- ▲2015년 10월 - 에메이징 크루즈 출시
- ▲2017년 1월 - 올 뉴크루즈 출시
- ▲2018년 2월 - 폐쇄결정

송 지사 "GM 군산공장 폐쇄... 다국적기업에 실망"

GM이 군산공장에 대해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가 "심장이 멎은 듯 절절한 아픔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국지엠은 경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정부에 3조원을 요구하며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다국적 기업의 행태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지엠 군산공장은 군산경제의 제조업 생산의 6.8%, 수출의 20%를 좌우하고 도민의 기와 자존심

을 살려주던 기업이었던"이라며 "지엠 군산공장을 살리기위해 차 사주기 결의 대회, 중앙부처 정상화 건의 등 노력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지엠 군산공장마저 폐쇄됨에 따라 매우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이다"며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살리기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실 연휴 관계로 19일 신문 발행합니다.

훈훈한 설 명절 보내세요 -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전주시의 도시발전 키워드는? '조화와 균형'

신도시를 신도시답게... 구도심을 구도심답게...

전주시 전역이 개발과 재생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시 외곽에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춘 현대적인 신도시들이 생겨나고 전주한옥마을 등 가장 예스러운 간직한 구도심은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로를 되찾고 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도시는 가장 모던하게, 구도심은 전주답게, 각 권역별 사업으로 조화로운 도시와 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전주시 외곽 지역에는 에코시티와 민성지구, 효천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에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광역도시기반을 위해 명품 주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개 지역에서의 향후 거주예상 계획인구가 2만 3,540세대, 6만 928명에 달해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가장 한국적이고 전주의 정체성이 잘 간직된 구도심은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천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가꿔나가고 있다.

신도심을 가장 현대적인 주거중심

지로 조성한다면 구도심은 가장 전주다운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고 그 효과가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관광경제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구상이다.

끝으로 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에도 각 권역별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삶의 질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라이다. /채규남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